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SK의 나눔 역사는 대한민국 사회공헌이 걸어온 발자취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행복나눔을 실천해 온 SK의 기틀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에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SK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해 왔다. 앞으로 SK는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진정성(Since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에 집중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1

## SK 사회공헌

행복레터

사회공헌 철학

사회공헌 추진체계

사회공헌 연혁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서해개발(현 SK임업)을 세워 녹색공헌에 앞장선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SK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할벗은 산을 푸른 강산으로 바꾸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나무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 1972

“할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지역주민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오,  
곧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법이오.”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봐도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조건 없이  
지원해도 괜찮다.”

# 1973

당시 갓 50대 중견기업에 들어선 SK의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모두가 외면하던 MBC '장학퀴즈'의 파격적인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한국 방송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프로그램이요, 예비 인재 발굴의 산실이라는  
성공신화를 이뤄냈습니다.



1974년 11월 26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중심으로 지식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선대회장의 꿈이 담긴 재단이었습니다.

# 1974

“여러분은 졸업하고 선경 오면 안돼,  
오지 마! 더 좋은 데로 가. 좋은 머리를 갖고  
나라를 위해 일 해야지.”



“수원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이 창업의 디딤돌을 쌓은 곳으로,  
SK는 수원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문화 발전에 동참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1995

1995년 4월 SK는 그룹의 발원지인 수원에 '선경도서관'을 건립하고  
수원시에 기증했습니다.  
선경도서관은 4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대형 도서관으로  
수원시민의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중심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행복 전도사’로서 행복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는  
 2004년 7월 22일 ‘SK자원봉사단’ 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SK는 그동안 각 관계사별로 행해지던 자원봉사를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2004

“SK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온 기업이다.  
 우리가 자원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기업이념으로 천명한 행복 극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이 되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SK가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을 위해 더욱 안전한 새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파이찌엔.”

# 2008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현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공부하는 현지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최태원 회장은 ‘행복소학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행복소학교가 문을 엽니다.



2012년 5월 SK는 이틀에 걸쳐 한국경영학회와  
 ‘2012 사회적 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과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2012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는 인재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복지 문제에서나 진일보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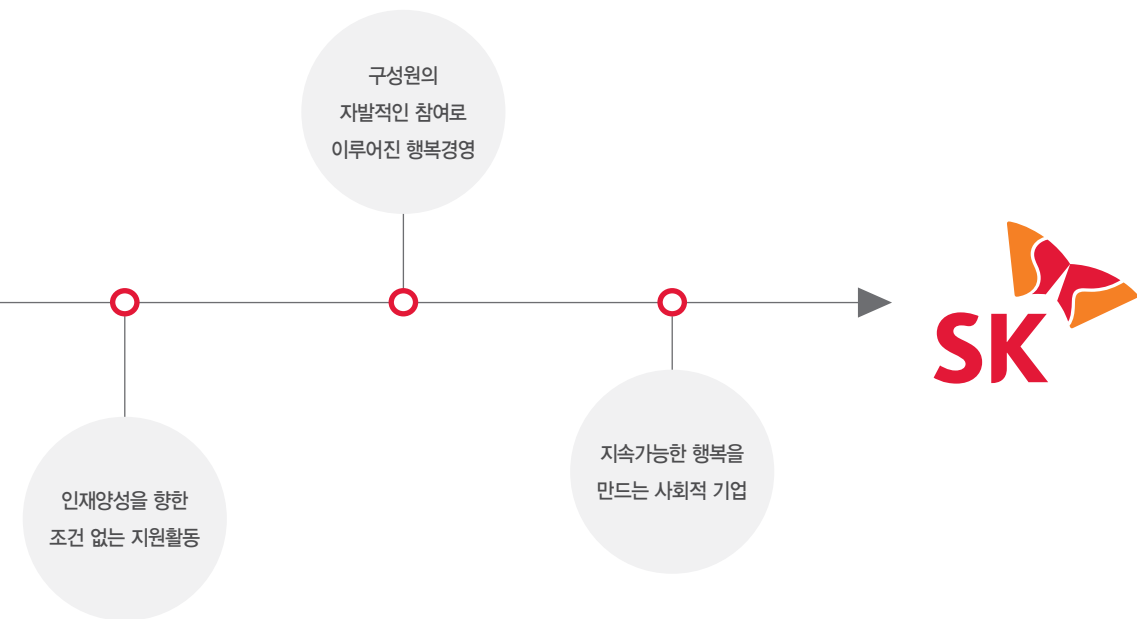
# 2013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사회적 기업가 MBA  
 1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행복이 스스로 자라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다

SK는 설립 초기부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대의를 품고 '인재양성'과 '산림조성'에 앞장섰다. 이후 SK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날 한층 더 진화한 SK의 사회공헌은 단순히 베풀고 참여하는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스스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인재양성을 향한 조건 없는 지원활동



조림사업

SK가 설립되었던 초창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아직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의 희망은 인재라는 신념으로 인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가재건에 힘썼다. 학문의 수준이 국력에 비례한다는 생각에서 '인재양성 100년 계획'을 세운 선대회장은 고도의 지식산업사회를 목표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풀 스폰서십 형태로 MBC '장학퀴즈'를 파격 지원했으며,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의 해외유학을 전폭 지원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장학사업의 기금 조성을 위해 조림기업인 서해개발(현 SK임업)을 인수했다. 물론 여기에는 민등산으로 험벗은 국토를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녹색공헌의 의지까지 깃들여 있었다. 실제로 SK가 지금까지 심은 나무는 330만 그루로써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듯 숲을 가꾸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조건 없는 나눔을 베풀던 시기였다. 이 당시 SK가 키워낸 인재와 숲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행복경영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는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영철학이다. 따라서 SKMS는 화석화된 경영이념이 아니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최적화되어 활용되는 살아있는 경영시스템이다. 1979년에 SKMS를 최초로 정립한 SK는 80년대에 이르러 SKMS에 대한 이해와 확산의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 90년대에는 SUPEX추구법을 도입해 SKMS의 실천력 제고와 성과 극대화에 주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S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는 2004년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핵심 경영철학으로 제시하게 됐고, 'SK자원봉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봉사단 출범 이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도드라지는 시기였다. SK 구성원들은 행복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몰입양면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SK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드높이는데 큰 힘이 됐다.

###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현재 전 세계는 빈곤, 환경오염, 물 부족, 질 낮은 의료시설, 열악한 교육시스템 등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문제로 가득하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SK는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단순한 나눔이나 참여만으로는 심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서 SK는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됐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사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전사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재 육성, 착한 자본의 유입,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성숙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행복의 혁신으로 만들어낸 더 큰 행복

SK는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기업경영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기업활동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SK는 과거의 일방적인 자선과 시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취약계층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한다. SK는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진정성(Since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3가지 추진방향으로 모든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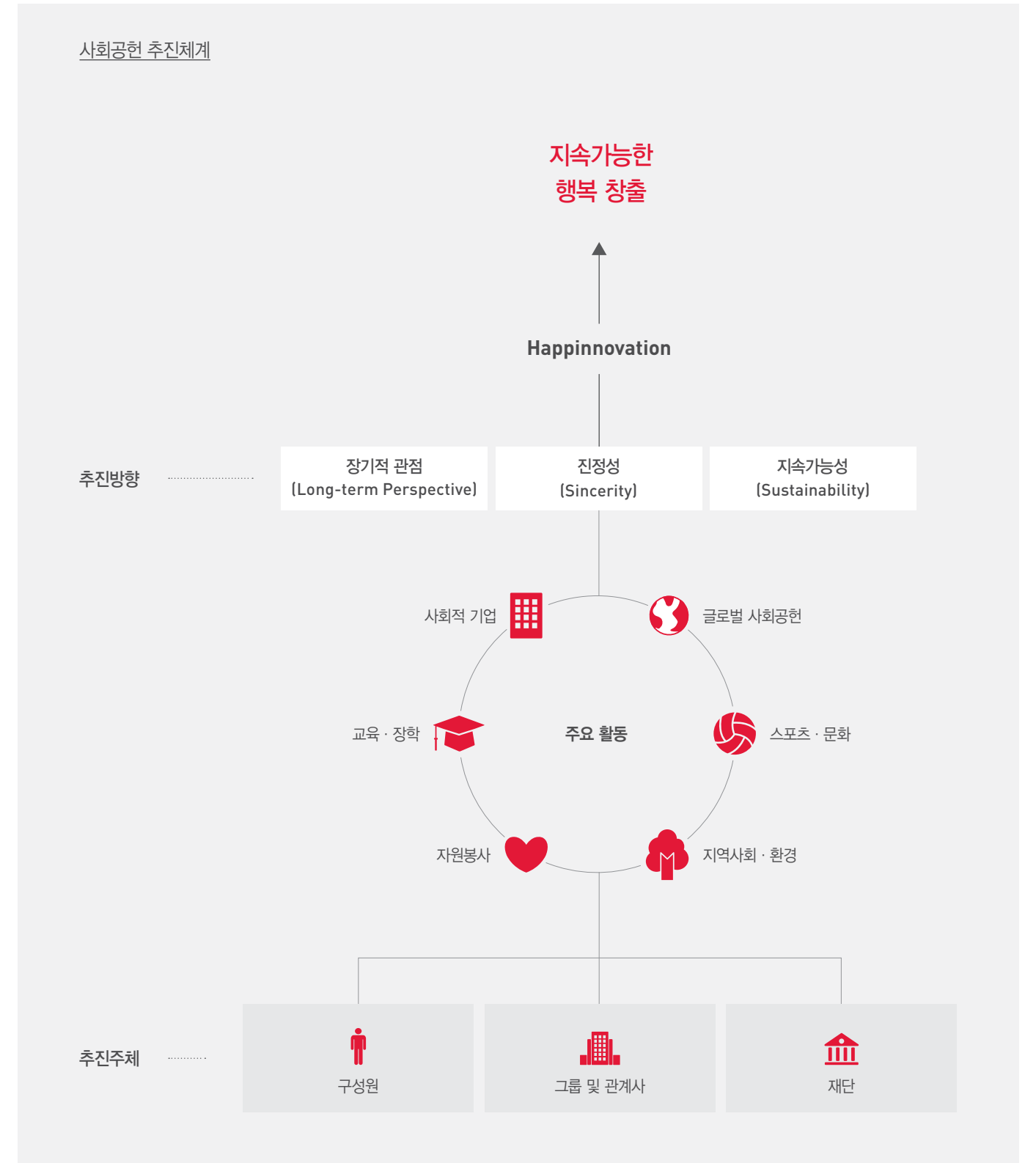
과거의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자선이 주를 이뤘다. 물론 배고픈 이에게 당장 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시적 방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SK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SK는 단기적인 효과성보다는 오랜 비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 진정성(Sincerity)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또한 이러한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더 큰 진정성을 불어넣는다. 대다수의 관계사가 봉사단을 운영하는 SK는 최고 경영층부터 전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 냄새 나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웃의 작은 상처 하나까지 어루만져준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SK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순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힘쓰고 있다. SK의 사회적 기업 활동은 사회적 기업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어 자생적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우다

## 1972~

- 1972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조림 시작 <sup>1</sup>
- 1973 MBC '장학퀴즈' 프로그램 시작 <sup>2</sup>
- 1974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다

## 1990~

- 1990 서울대에 'SK경영관' 준공·기증 <sup>1</sup>
- 1994 SK에너지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 시작
- 1995 수원시에 '선경도서관' 준공·기증
- 1996 SK텔레콤 지원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시작 <sup>2</sup>
- 1998 이화여대에 '이화-SK텔레콤관' 준공·기증
- 1998 KAIST에 'KAIST SUPEX경영관' 준공·기증
- 1999 SK텔레콤 주최 '장애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실시 <sup>3</sup>
- 2000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 실시
- 2000 중국판 장학퀴즈 'SK장웬방' 프로그램 시작 <sup>4</sup>
- 2000 아트센터 나비 설립



1 2



1 2 3 4

###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다

## 2003~

- 2003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 결성 <sup>1</sup>
- 2004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포럼 제1회 '베이징포럼' 개최
- 2004 'SK자원봉사단' 결성
- 2005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포럼 제1회 '상하이포럼' 개최 <sup>2</sup>
- 2005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2005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SK 행복나눔계절' 선포
- 2006 교육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318 해피존' 사업 시작
- 2006 수원시 '해비타트-SK행복마을' 사업 시작 <sup>3</sup>
- 2006 울산시에 준공·기증한 '울산대공원' 개장
- 2006 결식아동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도시락' 사업 시작
- 2007 SK텔레콤 중국 우루무치에 'SK애심소학교' 준공·기증
- 2008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베트남 '국가우호훈장' 수훈
- 2008 태안지역 해양오염 사고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살리기 진행
- 2008 쓰촨성 재난구호 지원 활동
- 2008 UN글로벌컴팩트 이사에 한국인 최초로 최태원 회장 선임



1 2 3

### 지속가능한 행복에 투자하다

## 2009~

- 2009 대기업 최초 'SK프로보노 자원봉사단' 발족 <sup>1</sup>
- 200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포털 '세상(www.se-sang.com)' 오픈
- 2009 행복나눔재단 내 사회적 기업사업단 창단
- 2009 'SK미소금융재단' 설립 <sup>2</sup>
- 2010 SK 설립 1호 사회적 기업 '행복한학교' 출범 <sup>3</sup>
- 2010 기업인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 헌정
- 2010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준공
- 2011 대한핸드볼협회에 '핸드볼전용경기장' 완공·기증 <sup>4</sup>
- 2012 그룹사 소모성자재 공급기업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로 전환
- 2012 사회적 기업 포럼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정신' 개최
- 2013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13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정규 학제인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



1 2 3 4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SK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며, 사회적 기업 양성과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 2012년 SK는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사회적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은 지원기관, 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각종 현안을 진단하고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SK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Rio+20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에서 전 세계 사회적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SE 액션 허브'를 제시했다. 또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인 SPC (Social Progress Credit)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 육성 경험과 고민을 담은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2014년 출간하여 새로운 논의의 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꾸준히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SK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비전을 찾아낼 것이다.

## 1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는 SK



## 2 SK, KAIST와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



SK는 우리 사회에 혁신적 사회적 기업이 보다 많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존속하게 만드는 주체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MBA 과정을 접목시켰다. 2012년 5월 SK는 KAIST와 사회적 기업가 MBA 개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그 해 10월 10일 KAIST 서울 홍릉 캠퍼스 내에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개설했다. 2013년 2월 1기생 20명을 선발한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는 해외 현장실습,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창업 멘토링 지원 등을 시행했다. SK는 우수한 인재들을 기반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그룹사 소모성 자재 공급기업을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로 전환



2012년 SK는 당시 1,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로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제시했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판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SK는 '사회적 기업 매출 증대→수익 창출→고용 확대→지속경영'이라는 비즈니스 선순환의 구조를 이끌고 있는 행복나래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행복한학교' 설립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SK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학교를 설립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의 4개 지역에 설립된 행복한학교는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운영과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 공교육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업인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했다. 숲의 명예전당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나무 신종증 개발 및 임업기술 연구개발 등에 공헌한 사람을 추천받은 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여하는 임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4년 사재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출범시켰고, 이 재단의 재원조달을 위해 SK임업의 전신인 서해개발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조림에 나섰다. 현재 SK임업의 조림지인 충북 충주 인등산, 충남 천안 광덕산, 충북 영동, 경기 오산 등 4개 사업소 4,100ha(약 4,000만㎡)의 임야에는 팔만대장경에도 쓰인 고급 수종인 자작나무를 비롯해 조림수 40여 종, 조경수 80여 종 등 33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SK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는 선대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녹색공헌에 매진할 것이다.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5



**6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평소 우리강산이 분묘로 뒤덮여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8년 영면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거의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는 유언을 남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묘지로 인한 국토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했던 선대회장의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 SK는 뜻 깊은 기부에 나섰다. 2007년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한 SK는 2010년 1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준공했다. 장례문화센터는 무색, 무취, 무연의 시설을 구비하여 최첨단 수준을 자랑하며, 화장시설 조성을 준비하는 서울, 창원, 울산 등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7 SK와 이웃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맞이 ‘SK 행복나눔계절’**

2005년부터 SK는 행복나눔계절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 행복나눔계절에는 그룹 최고경영층과 구성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나눔, 소통, 상생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SK 행복나눔계절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장나누기, 연탄배달, 바자회, 소액기부 캠페인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나눔을 펼치고 있다.



**8 19년째 이어져 온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SK가 베트남에서 펼쳐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은 얼굴기형 어린이를 위한 무료수술이다. 베트남 전쟁 후 구순구개열 어린이가 베트남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SK는 1996년 5월 하노이를 시작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먼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무료수술 사업을 본격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지원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SK에게 2008년 국가우호훈장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9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

2003년 탄생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는 ‘선한 이’라는 뜻으로써 서울부터 제주까지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생 스스로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2010년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NY China’를 성공적으로 창단했고, 2013년부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해피노베이터(Happinnovator)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출범과 ‘핸드볼전용경기장’ 건립**

SK는 비인기 종목 스포츠 육성에 국가적 사명을 갖고 앞장서 왔다. 그 중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국민을 감동시킨 핸드볼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SK는 2011년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핸드볼코리아리그를 회생시켜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10월에는 핸드볼전용경기장을 완공하여 대한핸드볼협회에 기증했다. 핸드볼 경기가 없을 때는 타 종목 경기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